2018 가을 통일국토순례 소감문

**[우리는 무엇 때문에 통일하려고 하는가?]**

황예진(18세) │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2018년 가을 통일국토순례가 끝났다. 10/17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39명의 순례자들은 평소에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곳을 순례하고 돌아왔다.

첫날 아침부터 새끼발톱을 다친 나는 걷기 힘든 하루를 보냈다. 두 번째 맡은 조장이지만 여전히 부담되었고, 내 손으로 직접 조원을 뽑았는데 혹여나 별로라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다. 또한 졸업 학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겐 여러 걱정을 안고 출발한 여정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가는 국토순례다보니 사전준비를 열심히 했고 전보다는 능숙하게 갔다 올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인해 뜻깊은 국토순례로 기억이 남아 감사하였다.

긴 이동시간을 채워 가는 길마다 찬양하고, 가는 곳마다 기도했던 우리는 것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게 만들었다. 어색한 사람들이었지만 끝날 땐 친해졌다. 다른 국토순례 같으면 직접 밥을 해먹는다는데 너무 풍부하고도 다 차려진 음식을 먹었다.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특히 우리 ‘구명조’가 있었다. 다친 사람 한 명 없이 안전하게 다녀왔다. 북한 바로 앞에서 바라보았다. 알맞은 날씨를 주셔서 가진 것으로 서로를 돕기도 하고 주님이 지으신 놀라운 자연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함 그 자체였던 것 같다.

통일 국토순례라는 이름답게 북한을 바라보는 일정이 대부분이었다. 고성, 속초, 양구, 철원, 파주의 임진각과 판문점까지 남한 지도에서 북한과 가까운 곳들을 순례하고 왔다. 여러 역사박물관들을 돌아보며 6.25 그 당시의 흔적들을 보고, 땅굴에도 들어가 북한을 300m 앞둔 곳까지 가보는 생생한 체험도 했다. 또 통일전망대를 비롯하여 소이산, 멸공OP에 올라가 멀리 보이는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봄학기 국토순례보다 갈 곳을 미리 체계적으로 공부한 덕분에 우리가 가서 본 것들이 익숙했고, 새로운 지식을 담기에도 편했던 것 같다.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 민간인 통제 구역에 들어가기 위해 미리 명단을 보내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길 양 옆에는 지뢰지역이라는 표시가 끊이지 않았다. 몇 곳 중 멸공 OP와 판문점은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겨우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근무한다는 군인아저씨들에게 설명도 듣고 질문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군사분계선 너머 비무장지대는 물론, 멀리 북한땅을 바라볼 때의 마음은 표현하기 벅찼다. 판문점에서는 군인들이 마치 마네킹처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서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몸의 반은 숨기고 반쪽으로만 북한 쪽을 바라보며 총과 함께 항시 대기하고 있으며, 1m 앞에서 북한 군인과 눈을 마주쳐도 무표정으로 지나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남과 북이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곳, 그러나 침묵 속에서 날아가는 낙엽마저도 소리가 날까 긴장감이 돌았던 판문점을 다녀온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경험이었고 은혜였다.

이렇게 남북의 상황을 배우고 그 당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지금의 북한을 보았다. 지금까지 나는 ‘북한과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 인구수도 많아지고, 자원도 풍부해질 것이며, 남들이 쉽게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들은 바 있었다. 그래서 나는 통일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국토순례를 통해 내 생각은 살짝 바뀌었다. 통일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다. 한 민족이 통일을 바라는 모습 자체로 이상한 게 아닐까? 나는 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같은 민족끼리 싸워 갈라진 후 눈이 마주쳐도 말 한마디 섞지 못한 채 바라만 봐야하고 오히려 눈을 피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그래서 통일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 군데군데 돌아다니면서 보았던 6.25의 흔적은 나의 마음이 오묘하게 타오르게 끔 하였다. 그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세워졌으며 복음을 가지고 세워진 덕분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했다. 이제 이 나라에 사는 나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주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 옳은 것과 옳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동하는 나로 성장하고 싶다.

하나님, 앞의 우리 역사에서 그들이 먼저 목숨 바쳐 싸우고 복음 안에서 조국을 세워 지금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은혜 아래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복음 앞에서 경건하고, 옳게 행동하며,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우리 GHSA, 지구촌교회, 대한민국 사람되게 도와주세요.